

정유4사, 휘발유 · 경유 가격 인하

석유협회, 9월 셋째 주 세전 30-40원 하락 ... 넷째 주에도 추가하락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발맞춰 국내 정유기업들도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국내 석유제품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국제 석유제품가격이 8월 넷째 주에 배럴당 휘발유가 113.79달러, 경유는 133.26달러를 기록한 후 9월 들어 떨어지기 시작해 9월 첫째 주에는 각각 109.06달러, 126.50달러, 9월 둘째 주에는 106.27달러와 120.55달러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기업들도 9월 셋째 주에 주유소 공급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9월 셋째 주 정유기업들의 리터당 세전판매 가격은 둘째 주에 비해 30-40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석유협회는 앞으로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유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면 9월 넷째 주에도 30원 이상의 추가 인하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환율 등을 감안해 국내 석유제품가격을 정하고 있으며, 통상 국제유가의 변화가 국내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약 1-2주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22>